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9권 2호 (2016년 6월)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목 차

모의 통제양식과 모의 적응 및 자녀의 적응

..... 이정옥 · 최해연

어머니의 정서발달관련 신념이 자녀의 부정정서 표현에 대한 반응과 아동의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

..... 신주혜 · 정윤경

ADHD 아동의 화용론적 결함 및 공감능력 부족과 또래관계문제와의 관련성

..... 남궁선 · 이영호

2-3세 발달지연 영유아의 발달양상, 양육환경 및 임상적 특징

..... 이경숙 · 정빛나래 · 정석진 · 박진아

발행처 : 한국발달심리학회

인쇄일 : 2016년 6월 15일

발행인 : 정영숙(부산대학교 심리학과)

발행일 : 2016년 6월 15일

주 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심리학과 (내)

제작처 : 책과공간

전 화 : 051-510-2135

(02-725-9371)

편집위원장 : 송현주(연세대학교)

편 집 위 원 : 권미경(U.C Davis)

김은영(순천향대학교)

김혜리(충북대학교)

노수림(충남대학교)

박영신(경북대학교)

이현진(영남대학교)

정윤경(가톨릭대학교)

최유정(Yale University)

심 사 위 원 : 김민희(한국상당대학원대학교)

김애순(연세대학교)

김연수(서울대학교)

김은경(단국대학교)

김주희(연세대학교)

노수림(충남대학교)

문혁준(가톨릭대학교)

박영신(경북대학교)

박창호(전북대학교)

서경현(삼육대학교)

성현란(대구가톨릭대학교)

손정락(전북대학교)

송하나(성균관대학교)

송현주(연세대학교)

신나나(이화여자대학교)

신주혜(가톨릭대학교)

양수진(이화여자대학교)

어주경(연세대학교)

옥 정(서울사이버대학교)

유 경(한림대학교)

윤선아(국제대학교총합대학원대학교)

이기학(연세대학교)

이동귀(연세대학교)

이동형(부산대학교)

이수진(경일대학교)

이유진(가톨릭대학교)

장문선(경북대학교)

장석환(차의과대학교)

장은진(침례신학대학교)

장혜인(성균관대학교)

정영숙(부산대학교)

진미경(숙명여자대학교)

최영은(중앙대학교)

최은실(가톨릭대학교)

현명호(중앙대학교)

한국심리학회지: 발달은 한국발달심리학회의 기관지로서 연 4회 간행되며, 발달심리학 분야의 연구논문, 자료 및 논평을 게재한다. 한국심리학회지: 발달은 일정한 구독료를 받고 배부하며, 한국심리학회에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한국심리학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구독이 가능하다. 비회원의 구독에 관해서는 편집위원회 사무실로 문의하기 바란다.

This journal is issued quarterly-annually and carries research articles based on empirical data & theoretical review. Subscription inquiries and manuscript submission should be directed to: Editor,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of Korea, Seoul, Korea.

Editor: Hyun-Joo Song(Yonsei University)

Associate Editor: Mee-Kyoung Kwon(U.C Davis)

Hei-Rhee Ghim(Chungbuk National University)

Young-Shin Park(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Yoon-Kyoung Jeong(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Eun-Young Kim(Soonchunhyang University)

Soo-Rim Noh(Chungnam National University)

Hyeon-Jin Lee(Yeungnam University)

You-Jung Choi(Yale University)

한국심리학회지

발 달

제 29 권 제 2 호 / 2016. 6.

모의 통제양식과 모의 적응 및 자녀의 적응

..... 이정옥 · 최해연 / 1

어머니의 정서발달관련 신념이 자녀의 부정정서 표현에 대한 반응과

아동의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

..... 신주혜 · 정윤경 / 21

ADHD 아동의 화용론적 결함 및 공감능력 부족과 또래관계문제와의 관련성

..... 남궁선 · 이영호 / 43

2-3세 발달지연 영유아의 발달양상, 양육환경 및 임상적 특징

..... 이경숙 · 정빛나래 · 정석진 · 박진아 / 63

한국발달심리학회

ADHD 아동의 화용론적 결함 및 공감능력 부족과 또래관계문제와의 관련성*

남 공 선†
제주대학교병원

이 영 호
가톨릭대학교

본 연구는 ADHD 아동의 화용론적 결함 및 공감능력의 부족이 또래관계문제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정상집단과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3-6학년 아동과 부모 56명(ADHD 29명, 정상 27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부모에게 아동의 ADHD 증상과 화용론적 능력을 평정하도록 하였으며, 아동에게 공감능력, 또래관계문제를 평정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ADHD 아동이 정상 아동에 비해 화용론적 결함과 또래관계문제가 더 많았으며, 공감능력은 차이가 없었다. 둘째, 화용론적 능력과 공감능력 중 또래관계문제와 관련이 있는 변인은 집단 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ADHD 아동 집단에서는 화용론적 결함 중에서도 맥락 사용이 또래관계문제의 냉담함, 사회적 억제와 관련되었으며, 인지적 공감이 또래관계문제의 통제지배와 관련되었다. 반면 정상아동 집단에서는 화용론적 결함 중 정형화된 언어가 전반적인 또래관계문제와 관련되었으며, 공감은 또래관계문제의 자기중심성, 냉담 및 비주장성과 관련되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 ADHD 아동은 정상아동에 비해 상황적 맥락에 맞는 의사소통을 하지 못해 또래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인지적 공감능력이 부족하여 지나치게 친구들을 통제하고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겠다.

주요어 : ADHD 아동, 주의력 결핍-과잉행동 장애, 또래관계문제, 공감능력, 화용론적 결함

* 본 논문은 2013년도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수정, 보완하였음.

† 교신저자: 남공선, 제주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상심리실, E-mail: ashbeetle@naver.com

주의력 결핍-과잉행동 장애(Attention 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이하 ADHD)는 부주의, 과잉행동, 충동성을 특징으로 하는 장애이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미국 기준 유병률은 5%(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이며, 국내 지역사회에서 실시된 개인 연구에서는 복합형 6.4%, 부주의 우세형 4.3%(이명주, 2006), 서울시 소아청소년 광역정신보건센터에서 아동용 진단면담계획-4판(Diagnostic Interview Schedule for Children-version-IV; DISC-IV)을 활용한 연구에서는 13%로 아동기 장애 중에서 비교적 높은 유병률을 보인다(김봉년, 정동선, 황준원, 김재원, 조수철, 2006).

이에 ADHD에 대한 많은 선행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주로 학업 및 과제수행에서 보이는 인지적 결손에 대한 주제가 대부분이었으며, 상대적으로 사회적 적응 문제에 대한 관심은 부족하였다. 그러나 ADHD는 자신의 행동을 주위 사람에게 맞추는데 어려움이 있고(Nijmeijer, Minderaa, Buitelaar, Mulligan, Hartman, & Hoekstra, 2008), 가족이나 또래관계를 비롯하여 학업 및 사회적 상황에서 심각한 장애를 보이는 등(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심리사회적 적응에 손상을 보인다. 최근에 ADHD의 충동성과 주의력 손상이 회복되더라도 사회적 부적응은 여전히 잔존하며(Lee, Lahey, Owens, & Hinshaw, 2008), 환자의 장기적인 예후와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Pelham, Fabiano, & Massetti, 2005)와 같이 인지적 결함만큼 사회적 부적응이 심각하고 만성적인 경과를 보인다는 보고가 계속 이어지면서 ADHD의 사회적 부적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회적 부적응이란 당면한 사회적 상황에 맞도록 적절하게 행동을 변경하지 못함, 사회

적 정보에 대한 이해의 부족, 사회적 접촉이나 흥미 감소, 의미있는 관계의 결여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개념이다(Nijmeijer et al., 2008).

DSM-5에 제시된 대다수의 정신장애 진단기준에서 사회적 부적응을 포함시키고 있지만, 그 양상은 장애 별로 상이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ADHD 아동에게서 나타나는 고유한 사회적 부적응을 구체적으로 살피는 것이 ADHD 아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DSM-5에 제시된 ADHD의 진단기준에서 사회적 부적응에 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크게 사회적 기술과 의사소통의 결함이라는 두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일 또는 놀이를 할 때 지속적인 주의집중에 어려움이 있다', '여가활동에 조용히 참여하거나 놀지 못한다', '차례를 기다리지 못한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방해하거나 간섭한다'는 사회적 기술(social skill)의 결함을 의미하며, '다른 사람이 말을 할 때 경청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지나치게 수다스럽게 말한다', '질문이 끝나기 전에 성급하게 대답한다'는 의사소통(communication)에서의 결함을 의미한다. Clark 등의 연구에서는 ADHD 아동의 부모에게 자폐증상 체크리스트를 평정하도록 하였는데, 부모가 보고한 ADHD 아동의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서의 문제는 자폐에 준할 정도로 심각한 손상을 보였다(Clark, Feehan, Tinline, & Vostanis, 1999).

본 연구에서는 ADHD 아동의 사회적 부적응을 또래관계문제의 측면에서 보고자 한다. 아동기의 사회적 적응은 주로 또래관계를 통해 평가되는데, 사회성과 정서의 발달에 아동기의 또래관계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송영혜, 윤지현, 이승희, 오미경, 김

은경, 김향지, 이은진, 2004). 그동안의 연구에서 ADHD 아동은 또래에 비해 사회기술 및 의사소통에서 어려움이 있으며(Klimkeit, Graham, Lee, Morling, Russo, & Tonge, 2006), 자기중심적이고, 충동적이며, 거슬리게 행동하고 요구적이고 적대적인 행동을 보이는 문제가 있다고 확인되었다(Wehmeier, Schacht, & Barkley, 2010; 송영혜 등, 2004; Mrug, Hoza, Gerdes, Hinshaw, Arnold, Hechtman, & Pelham, 2009). 이로 인해 ADHD 아동은 또래관계에서 거부당하며(Hoza, Mrug, Gerdes, Hinshaw, Bukowski, Gold, & Arnold, 2005; Mrug et al., 2009), 친구가 적고(Hoza et al., 2005), 관계의 질이 피상적이며 지속적인 관계유지가 어렵다(Mikami, 2010; Wehmeier et al., 2010). 이러한 또래관계에서의 어려움은 비단 아동기 뿐 아니라 유아기부터 성인기까지 발달 스펙트럼 상에서 적응 상 문제를 일으키므로, ADHD 아동의 심리정서적 발달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Cardoos 등의 연구에서는 ADHD 아동을 대상으로 우정이 문제행동과 또래 괴롭힘 사이를 중재하는지를 살펴보았다. ADHD 아동은 다른 아동에 비해 외현화 및 내재화 문제를 많이 보이고 또래 괴롭힘을 더 많이 당하였다. 그런데 ADHD 진단여부를 통제했을 때에도, 우정(friendship)이 내재화 및 외현화 행동과 또래 괴롭힘 사이를 조절하였다(Cardoos & Hinshaw, 2011). 즉 ADHD 진단여부와 상관없이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동도 또래관계가 좋으면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덜 당하는 것이다. 위험요인이 있더라도, 안정적인 또래관계를 형성하면 적응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를 고려해 볼 때(장휘숙, 2001), 적절한 또래관계 형성은 ADHD 아동이 지닌 여러 가지 위험에

대한 중요한 보호요인이 될 것이다. 특히 ADHD 아동의 또래관계에서의 문제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향후 ADHD 아동의 사회성치료와 관련한 개입에 도움이 될 것이라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는 또래관계문제와 관련된 것이라 예상되는 요인으로 화용론적 결함을 선택하였다. 화용론(pragmatics)은 의미론(semantic), 통사론(syntax)과 더불어 언어능력의 한 요소로, 화자와 청자 모두 상대방의 의도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의미한다(김영태, 2002). 이처럼 화용론은 상황에 맞는 적절한 의사소통에 대한 지식과 행위를 포함하며, 언어적 표현 뿐 아니라 몸짓이나 발화와 같은 비언어적인 측면도 해당된다(Lezak, Howieson, Bigler, & Tranel, 2012).

Bishop(1998)은 화용론을 의사소통적 맥락에서 적절한 메시지를 선택하고 이해하는 능력이라고 하며, 화용론적 결함을 구성하는 하위 요인을 제안하였다. 주요 화용론적 결함 요소로는 대화할 때 순서를 잘 지키지 못하여 다른 사람이 말하는 도중에 끼어들거나 질문하는 부적절한 시작(inappropriate initiation), 말에 사용된 내용 간의 의미적 연결 관계의 손상을 나타내는 결속력(coherence), 기계적인 상투어나 반향어를 사용하는 정형화된 언어(stereotyped language), 문맥을 파악하지 못하거나 비유 혹은 완곡한 표현을 이해하지 못하는 맥락 사용(use of context), 얼굴 표정이나 몸짓 사용 등의 비구어적 의사소통(nonverbal communication)의 문제가 있다. 화용론의 결함은 발화와 의미론, 통사론은 비교적 잘 유지되어 언어의 생성은 적절하지만 생성한 언어를 맥락에 알맞게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능력에 손상을 보이게 되므로(Bishop, 1998), 또래 간 상호작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ADHD 아동의 화용론적 결함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언어장애(Language Disorder; LD)와 비교분석 한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그간의 연구에 따르면 화용론적 결함은 자폐스펙트럼 장애(Autism Spectrum Disorder; ASD)와 ADHD에서 두드러진다(Bishop & Baird, 2001; Geurts & Embrechts, 2008; Oram, Okamoto, & Tannock, 1999). ADHD 아동은 ASD만큼 화용론적 손상이 전반적이고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동일연령의 정상아동보다는 현저한 화용론적 결함을 보인다. ASD와 ADHD 아동을 정상아동과 비교한 연구에서는 발화 산출(speech output), 의미론, 통사론 등의 능력은 유사한 수준이었으나, 화용론적 능력과 사회적 의사소통은 또래에 비해 심각한 손상을 보였다(Geurts & Embrechts, 2008). 이와 일관되게 화용언어에 대한 연구를 개관한 논문에서도 ADHD 아동은 상황에 적절하게 말하기, 정교하게 표현하기, 자연스럽게 대화 주고받기, 대화주제를 이끌어내기에 손상을 보인다고 하였다(이은주, 2010).

Giddan(1991)은 ADHD 아동은 아동기 초기부터 주의력 결함 및 과잉행동과 함께 제한된 언어능력을 보이며 좌절을 겪거나 분노하는 상황에서 더 행동화(acting out)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특히 학령기는 또래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화되고 자아정체성을 형성하는 시기로, 또래관계에서 거부당하는 것은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과 같다(Giddan, 1991). 따라서 ADHD 아동의 화용론적 결함은 단순한 언어적 활용능력의 결함 이상으로 심각한 사회적 부적응을 야기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또래관계문제와 관계있는 변인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다른 요인은 공감능력

이다. 공감(empathy)이라는 용어는 1900년대 초기에 독일 의사들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 자신을 위치시키는 능력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다(Gillberg, 2007). 그 후에 학자들은 다양한 의미로 공감을 정의하였으며, 수많은 논의 끝에 학자들은 공감이 단일요소가 아닌 다차원적인 구성개념이라고 정의하였다(Davis, 1980; Hoffman, 1990). 최근 학계에서는 Cohen과 Strayer(1996)의 정의로 의견을 모으고 있는데, 공감이란 주어진 맥락 내에서 다른 사람의 정서 상태를 이해하고 공유하는 능력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공감에는 타인의 상태를 조망하는 인지적 요소와 타인의 느낌에 자신을 둘 수 있는 정서적 요소가 있다. 인지적 공감은 공감의 정확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조망수용, 마음이론(theory of mind) 등의 요소가 포함된다. 정서적 공감에는 공감적 관심과 개인적 고통이 있다(Davis, 1980). 개인마다 공감 전략은 다를 수 있는데(Hodges & Biswas-Diener, 2007), 사람마다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의 수준이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실시된 일반아동 대상의 여러 연구에서는 공감적 능력이 친사회적 행동과 강한 관련성이 있으며 공격성과는 부적인 상관이 있다고 하였다(양혜영, 김혜리, 김경미, 구재선, 정명숙, 박은혜, 2008; 김혜리, 정명숙, 손정우, 박민, 엄진섭, 문은옥, 이수미, 2013; 박성희, 1996; 차화정, 김혜리, 이수미, 엄진섭, 이승복, 2011). 즉, 공감을 잘하는 아동은 친사회적 행동을 더 많이 보여 더 긍정적인 또래 관계를 맺는 데 반해, 공감능력이 낮은 아동은 공격적이어서 인기가 없고 친구들에게 더 거부당한다. 그동안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한 공감과 또래관계와의 관련성은 활발히 연구되었던 반면, ADHD 아동 대상의 연구는 주로

공감능력의 손상여부만을 초점에 두었으므로(온싱글, 김은정, 2003; Clark et al., 1999; Marton et al., 2009; Uekermann, Kraemer, Abdel-Hamid, Schimmelmann, Hebebrand, Daum, & Kis, 2010), ADHD 아동의 제한된 공감능력이 또래관계의 맥락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알기 어려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DHD 아동의 공감능력이 또래관계문제와 어떤 관련성을 가지며, 일반아동과 비교했을 때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또한 ADHD 아동의 또래관계문제를 다룬 선행연구는 주로 부모 및 교사의 평정이나 또래가 보고한 사회적 관계 측정을 기반으로 한 행동관찰 자료 위주였으며, 또래관계에서 겪는 아동의 주관적인 어려움은 거의 연구되지 않았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자기보고식 설문을 통해 ADHD 아동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또래관계에서의 어려움을 다양한 문제행동의 맥락에서 살펴볼 것이다. 두 번째로 의사소통적 측면인 화용론과 정서적인 측면인 공감에서 보이는 결함이 각각의 또래관계문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할 것이다. 우선, ADHD 아동과 정상 아동 간의 화용론적 능력과 공감능력의 차이를 살펴본 후, 화용론적인 결함과 낮은 공감능력이 또래관계문제 중 어떠한 영역과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ADHD 아동이 주로 보이는 또래관계문제행동을 파악하고, 이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알아내는 것은 ADHD의 또래관계 부적응과 관련한 치료적 개입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및 연구절차

본 연구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3-6학년 아동 및 부모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ADHD 집단 32명, 정상 집단 35명을 모집하였다. DSM-IV-TR에 수록된 ADHD 진단 기준에 맞지 않은 아동, 불성실한 응답을 한 11명의 아동을 제외하고, 최종 분석으로 쓰인 자료는 총 56명으로, ADHD 아동 29명, 정상 아동 27명이었다. ADHD 집단은 정신과 전문의에게 DSM-IV-TR 기준으로 ADHD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중인 아동만을 모집하였다. 정상집단 아동은 ADHD 증상을 평정하는 Swanson, Nolan, and Pelham Questionnaire(이하 SNAP-IV)에서 총점이 1표준편차 미만인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에 더해 지능지수가 80 이상이며, 정신의학적 질환이 보고되지 않은 아동만을 정상 집단으로 선정하였다.

모집 방법은 구전식 스노우볼 표집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실무자와 신경정신과 부설 아동센터의 치료자에게 협조를 구하여 구두홍보를 하였으며, 센터에 다니지 않는 정상아동의 경우 연구자가 직접 가정방문을 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아동과 부모에게 연구에 대한 설명문을 제공하였으며, 설명문을 읽은 후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연구 참여를 결정하는 서면동의서를 작성하였다. 연구에 참여에 동의한 부모 및 아동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아동의 지능검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앞서 제시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료만을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공용기관윤리생명위원회의 심사를 승인받았다.

측정도구

한국형 단축형 부모용 SNAP-IV 척도

Swanson, Nolan, and Pelham이 DSM-III에 근거하여 개발한 Swanson, Nolan 및 Pelham 평가 척도(Swanson, Nolan, and Pelham Questionnaire, 1982)의 개정판으로, DSM-IV의 진단기준에 맞추어 Swanson이 수정한 것을 서완석 등이 국내에 타당화하였다(서완석, 장혜경, 김진성, 이종범, 2008). 이 척도는 ADHD 증상을 평정하는 총 18문항으로 부주의 9문항, 과잉행동 및 충동성 9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0점에서 아주 많이 그렇다 3점으로, 총 54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ADHD 증상을 객관적으로 평정하고자 두 집단 모두에게 SNAP-IV를 실시하였다. 또한 정상아동 선정의 경우,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1 표준편차 이상인 점수를 절단점 기준으로 하였으며, 문항의 총합이 절단점을 넘으면 ADHD 가능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는 .95 였다.

아동용 의사소통 검사(Children

Communication Checklist; CCC)

특정 언어장애(Specific Language Impairment; SLI) 아동 중에서도 특히 의사소통의 문제를 보이는 아동을 변별하기 위하여 개발된 검사로, 부모 평정을 통하여 사회적 의사소통에서 나타나는 화용론적 결함 및 언어능력, 사회적 행동을 측정하는 도구이다(Bishop, 1998; Bishop, 2003). 총 9개의 하위요인 중 본 연구에서는 화용론적 언어를 측정하는 다섯 가지 요인만을 선택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는 부적절한 시작(inappropriate initiation), 결속력(coherence), 정형화된 언어(stereotyped conversation), 맥락 사용

(use of context), 관계형성(rapport)요인이 해당된다. 각 문항의 점수는 매우 그렇지 않다는 0점에서 매우 그렇다 2점의 범위이다. 점수 산출은 요인 1개당 기본으로 30점이 주어지게 되는데, 약점을 묻는 문항의 점수를 기본점수에서 뺄셈을 하고, 강점 문항의 점수는 기본점수에 더하여 산출한다. 화용론의 5개 하위요인을 합산한 것이 화용론적 능력의 총점수이며, 높은 점수일수록 화용론적 능력이 좋은 것이고, 낮을수록 화용론적 결함이 심한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해서 원저자에게 동의를 얻은 후, CCC를 한국어로 번안하였다. 영어권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심리학 전공의 한국인 2명의 검수를 받은 후, 임상심리전문가 2인의 교차 점검을 통하여 최종 번역본이 완성되었다.

문화적 차이로 인해 일부 문항이 의도에 맞게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는 원저자의 의견에 따라 문항의 일부 단어 및 예시를 한국문화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이해를 돕고자 몇 문항은 선행연구를 하였던 저자의 동의를 얻어, CCC-2 한국어판의 예시를 차용하였다(서경희, 2010).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90이다.

자기보고형 한국어판 EQ-C 척도(Children's versions of Empathy Quotient; EQ-C)

Aureung, Wheelwright, Allison, Atkinson, Samarawickrema 및 Baron-Cohen(2009)이 4세에서 11세 아동의 공감지수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자기보고식 척도이다. 국내에서는 차화정, 김혜리, 이수미, 엄진섭, 이승복(2011)이 한국어로 번안한 후 자기보고식으로 변형하여 타당화 예비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요인분석을 통해 수정된 문항을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EQ-C 척도는 총 3가지 요인으로, 인지적 공감

8문항, 정서적 공감 9문항, 사회적 기술 5문항을 합하여 총 2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공감능력을 측정하고자 하므로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에 해당하는 문항만을 사용하였다. 아동에게 각 문항을 읽고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약간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점수는 ‘전혀 그렇지 않다’와 ‘약간 그렇지 않다’는 0점, ‘약간 그렇다’는 1점, ‘매우 그렇다’는 2점으로, 역문항은 반대로 계산하였다. 차화정 등(2011)의 연구에서 문항의 내적 합치도는 .82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72 이다.

교우관계문제검사(Inventory of Peer Relation Problems)

정혜원, 김종미, 홍상황(2008)이 초등학교 4-6학년 학생들이 또래나 교우관계에서 경험하는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개발한 검사이다(한국심리학회 심리검사심의위원회, 2011). 총 64문항의 4점 리커트 척도로 또래관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문제들을 “~

하기가 어려워서”의 31문항, “너무 또는 지나치게 ~하려고 해서”의 33문항의 두 차원으로 평가하였다. 하위요인은 8가지 요인으로 자세한 내용을 표 1에 제시하였다. 선행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94이며, 본 연구에서는 .96 이다.

K-WISC-III의 어휘, 토막짜기 소검사

Korean Wechsler intelligence scale for children-III(이하 K-WISC-III)는 10개의 소검사와 3개의 추가 검사로 구성된 아동 지능평가 도구이다. 본 연구는 K-WISC-III 단축형을 개관한 선행연구에 제시된 공식 중 어휘(Vocabulary; V)와 토막짜기(Block Design; BD)로 전체지능을 산출하였다(전영순, 황순택, 이숙희, 2008).

분석방법

우선 집단 간 인구통계학적 변인에서 차이가 있는지 사전 분석을 실시하여 통제변인을 선정할 것이다. 이후 독립표본 t 검증을 통해 ADHD 집단이 정상아동에 비해 화용능력과 공감 및 또래관계문제에서 유의미한 차이

표 1. 교우관계 문제 검사 하위유형 (정성철, 홍상황, 김종미, 2011)

| 하위요인 | 의미 |
|--------|---|
| 통제지배 | 타인을 지나치게 통제하거나 조종하려는 경향 |
| 자기중심성 | 적대적 지배성, 즉 타인에게 쉽게 화를 내고 타인에 대한 불신 및 의심과 관련된 문제 |
| 냉담 | 타인에 대한 정서적 경험과 표현, 친밀감이 어려움 |
| 사회적 억제 | 여러 사람 앞에서 불안해하고 당황하며 매사에 소심한 경향 |
| 비주장성 |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감 결여, 욕구 및 의사표현의 어려움 |
| 과순응성 | 타인과의 관계에서 독립성 유지가 어려움, 쉽게 설득당하며 지나치게 순종적인 정도 |
| 자기희생 | 타인의 욕구에만 지나치게 민감하고 자신의 처지는 아랑곳하지 않는 경향 |
| 과관여 | 타인과의 관계에서 강한 결속력을 요구하고 자신에게 항상 관심을 기울여주길 바라는 성향 |

가 있는지 확인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화용능력과 공감에 또래관계문제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우선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본 후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집단 별로 각 또래관계문제를 가장 잘 설명하는 변인을 탐색할 것이다. 이에 더해 공변량분석을 실시하여 F 검증에서 유의미한 집단 차이를 보이는 또래관계문제에서 화용론과 공감에 해당하는 특정 변인을 통제하였을 때 F 값이 유의미하게 줄어드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화용론 혹은 공감에 해당하는 변인을 통제하기 전에는 집단차이가 유의미하였으나 통제 후 유의미하지 않은 수준으로 변화했다면, 그 변인이 또래관계문제의 집단차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결 과

우선, 연구참여자에 대한 자세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표 2에 제시하였다.

최종분석에 사용된 인원은 ADHD 29명, 정상아동 27명으로, ADHD 증상인 부주의와($\alpha(54) = 6.38, p < .001$), 충동성에서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alpha(54) = 6.02, p < .001$). 이밖에 집단 간 성별과 학년, 아동의 지능, 부모학력 및 소득수준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ADHD 집단과 정상 아동 집단 간 화용론적 능력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한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화용론적 결합에서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하였다($\alpha(54) = -6.64, p < .001$). ADHD 아동은 정상아동에 비해 화용론의 하위요소인 부적절한 시작

표 2. 집단 별 ADHD 증상 및 인구통계학적 특성

| 항목 | ADHD 아동 ($n=29$) | 일반 아동 ($n=27$) | 차이 검증 |
|----------------------|-----------------------|---------------------|----------|
| 빈도(백분율) | | | |
| | | | χ^2 |
| 모학력 | | | 9.12 |
| 초졸이하 | 1(3.8%) | 0(0%) | |
| 중졸 | 1(3.8%) | 0(0%) | |
| 고졸 | 5(19.2%) | 14(53.8%) | |
| 대졸 | 17(65.4%) | 12(46.2%) | |
| 대학원졸 | 2(7.7%) | 0(0%) | |
| 부학력 | | | |
| 고졸 | 7(25.9%) | 8(29.6%) | 1.32 |
| 대졸 | 19(70.4%) | 16(59.3%) | |
| 대학원졸 | 1(3.7%) | 3(11.1%) | |
| 월 소득수준 | | | |
| 130만원 이하 | 3(10.3%) | 2(7.4%) | 3.26 |
| 131-260만원 | 3(10.3%) | 6(22.2%) | |
| 261-360만원 | 3(10.3%) | 3(11.1%) | |
| 361-470만원 | 6(20.7%) | 5(18.5%) | |
| 471-750만원 | 12(41.4%) | 11(40.7%) | |
| 750만원 이상 | 2(6.9%) | 0(0.0%) | |
| 성별 | | | |
| 남자 | 27(93.1%) | 20(74.1%) | 3.75 |
| 여자 | 2(6.9%) | 7(25.9%) | |
| 학년 | | | |
| 3학년 | 12(41.4%) | 5(18.5%) | 5.12 |
| 4학년 | 4(13.8%) | 8(29.6%) | |
| 5학년 | 5(17.2%) | 3(11.1%) | |
| 6학년 | 8(27.6%) | 11(40.7%) | |
| 평균 (표준편차) | | | |
| 지능 | 104(13.12) | 112(15.14) | -1.97 |
| ADHD증상 | | | |
| 부주의 | 12.31(5.86) | 4.55(2.77) | 6.38*** |
| 과잉행동- 충동성 | 8.03(5.06) | 2.03(1.72) | 6.02*** |

*** $p < .001$

표 3. ADHD 아동 집단과 정상 아동 집단 간의 화용론적 능력 차이

| | ADHD 아동 | | t |
|---------|---------------|--------------|----------|
| | M(SD) | M(SD) | |
| 화용론적 능력 | 136.82(12.27) | 154.03(6.41) | -6.64*** |
| 부적절한 시작 | 26.37(3.86) | 30.59(1.18) | -5.59*** |
| 결속력 | 28.89(2.02) | 32.44(1.50) | -7.40*** |
| 정형화된 언어 | 24.89(3.42) | 28.70(1.43) | -5.48*** |
| 맥락사용 | 27.93(3.29) | 30.37(1.73) | -3.50*** |
| 관계형성 | 28.72(3.39) | 31.92(2.12) | -4.26*** |

*** $p < .001$

표 4. ADHD 아동 집단과 정상 아동 집단 간의 공감 능력 차이

| | ADHD 아동 | | t |
|--------|-------------|-------------|-------|
| | M(SD) | M(SD) | |
| 공감능력 | 22.86(4.65) | 24.74(4.74) | -0.98 |
| 인지적 공감 | 14.93(2.46) | 15.66(3.13) | -1.30 |
| 정서적 공감 | 7.93(3.16) | 9.07(3.39) | -1.49 |

*** $p < .001$

($t(54) = -5.59, p < .001$), 결속력 ($t(54) = -7.40, p < .001$), 정형화된 언어 ($t(54) = -5.48, p < .001$), 맥락사용 ($t(54) = -3.50, p < .001$), 관계형성에서 모두 유의미하게 낮은 점수를 보였다($t(54) = -4.26, p < .001$).

ADHD의 공감능력을 정상아동과 비교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한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공감능력은 두 집단 간 차이가 없었다($t(54) = -0.98, ns$).

ADHD 집단과 정상집단의 또래관계문제가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증

표 5. ADHD 아동 집단과 정상 아동 집단 간의 또래관계문제 차이

| | ADHD 아동 | | t |
|--------|--------------|--------------|---------|
| | M(SD) | M(SD) | |
| 또래관계문제 | 57.75(13.53) | 45.88(8.93) | 3.89*** |
| 통제지배 | 56.40(12.41) | 48.11(11.91) | 2.54* |
| 자기중심성 | 55.96(13.41) | 48.54(12.99) | 2.09* |
| 냉담 | 57.64(12.80) | 44.88(7.47) | 4.59*** |
| 사회적 억제 | 55.86(14.31) | 44.42(5.60) | 3.98*** |
| 비주장성 | 57.13(13.21) | 46.36(8.48) | 3.65*** |
| 과순응성 | 53.70(12.26) | 46.19(7.94) | 2.74** |
| 자기희생 | 53.93(12.65) | 46.71(8.91) | 2.48** |
| 과관여 | 56.21(12.41) | 47.27(11.45) | 2.79** |

* $p < .05$, ** $p < .01$, *** $p < .001$

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54) = 3.89, p < .001$). 즉 ADHD는 모든 또래관계문제에서 정상집단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자세히 살펴보면 ADHD는 또래관계에서 정상집단에 비해 냉담($t(54) = 4.59, p < .001$), 사회적 억제($t(54) = 3.98, p < .001$), 비주장성의 문제를 많이 보였다($t(54) = 3.65, p < .001$). 과순응($t(54) = 2.74, p < .01$), 자기희생($t(54) = 2.48, p < .01$), 과관여($t(54) = 2.79, p < .01$), 통제지배($t(54) = 2.54, p < .05$), 자기중심성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54) = 2.09, p < .05$).

다음으로 ADHD 아동의 주요변인 간 상관을 표 6에 제시하였다. ADHD 집단의 또래관계문제와 관련이 있는 화용론적 능력은 부적절한 시작, 맥락사용이었다. 맥락사용은 또래관계 중에서 통제지배($r = -.39, p < .05$), 냉담($r = -.49, p < .01$), 사회적 억제와 부적 상관을 보였

표 6. ADHD 아동의 주요 변인에 대한 상관표

| | 화용언어 | | | | | 공감 | | | |
|----------------|------------|------|------------|-------------------|----------|----------|-------------------|----------|----------|
| | 부적절한 시작 | 결속력 | 정형화된 언어 | 맥락 사용 | 관계 형성 | 화용 총점 | 인지 공감 | 정서 공감 | 공감 총점 |
| 통제지배 | -.12 | .11 | -.13 | -.39* | .08 | -.14 | -.40* | -.24 | -.37* |
| 자기 중심성 | -.25 | -.00 | -.18 | -.33 [†] | -.07 | -.24 | -.27 | -.21 | -.28 |
| 또 냉담 | -.38* | -.15 | -.21 | -.49** | -.10 | -.36* | -.36 [†] | -.03 | -.21 |
| 관 사회적 억제 | -.15 | -.07 | -.17 | -.39* | -.08 | -.23 | -.35 [†] | .07 | -.13 |
| 계 비주장성 | -.21 | -.20 | -.08 | -.34 [†] | -.10 | -.24 | -.17 | .13 | -.00 |
| 문 과순응성 | -.11 | -.16 | .04 | -.14 | -.01 | -.09 | -.09 | .24 | .11 |
| 제 자기희생 | .06 | .12 | .27 | .00 | .11 | .15 | -.11 | .21 | .08 |
| 과관여 | -.05 | .19 | -.09 | -.17 | .09 | -.03 | -.26 | .28 | .05 |
| 또래문제 총점 | -.18 | -.03 | -.08 | -.34 [†] | -.01 | -.18 | -.30 | .08 | -.10 |

[†] $p < .10$, * $p < .05$, ** $p < .01$

표 7. 정상 아동의 주요 변인에 대한 상관표

| | 화용언어 | | | | | 공감 | | | |
|----------------|------------|------|------------|----------|----------|----------|----------|----------|----------|
| | 부적절한 시작 | 결속력 | 정형화된 언어 | 맥락 사용 | 관계 형성 | 화용 총점 | 인지 공감 | 정서 공감 | 공감 총점 |
| 통제지배 | -.00 | -.22 | -.51** | -.42* | -.49** | -.44* | -.24 | -.25 | -.34 |
| 자기 중심성 | -.10 | -.14 | -.47* | -.34 | -.41* | -.39* | -.46* | -.44* | -.62** |
| 또 냉담 | -.27 | -.36 | -.42* | -.45* | -.47* | -.50** | -.51** | -.61** | -.77** |
| 관 사회적 억제 | -.13 | -.32 | -.26 | -.24 | -.35 | -.34 | .04 | -.36 | -.22 |
| 계 비주장성 | -.29 | -.30 | -.38* | -.28 | -.38* | -.41* | -.00 | -.44* | -.32 |
| 문 과순응성 | -.08 | -.20 | -.42* | -.12 | -.42* | -.33 | .09 | -.35 | -.19 |
| 제 자기희생 | .00 | -.13 | -.18 | -.09 | -.17 | -.15 | .00 | .06 | .05 |
| 과관여 | -.05 | -.18 | -.41* | -.30 | -.37 | -.35 | -.14 | -.09 | -.16 |
| 또래문제 총점 | -.14 | -.29 | -.51** | -.37 | -.50** | -.48* | -.21 | -.39* | -.42* |

[†] $p < .10$, * $p < .05$, ** $p < .01$

다($r=-.39, p<.05$). 화용언어 중 부적절한 시작은 냉담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r=-.38, p<.05$). 인지적 공감능력과 공감충점은 통제지배와 부적 상관을 보였다($r=-.40, p<.05, r=-.37, p<.05$). 한편, ADHD 아동의 정서적 공감은 또래관계문제와 관련이 없었다.

정상아동 집단의 주요변인 간 상관을 표 7에 제시하였다. 화용론적 언어능력 충점은 또래관계문제충점과 부적상관이 있었으며($r=-.48, p<.05$), 그 중에서도 통제지배($r=-.44, p<.05$), 자기중심성($r=-.39, p<.05$), 냉담($r=-.50, p<.01$), 비주장성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r=-.41, p<.05$). 즉 화용론적 언어능력이 낮은 정상아동은 전반적인 또래관계 문제가 있으며, 특히 지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거나, 자기주장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두드러졌다. 화용론적 하위요인 중 정상아동의 또래관계문제와 가장 많은 상관을 보인 요인은 정형화된 언어였으며, 또래관계문제 충점($r=-.51, p<.01$), 통제지배($r=-.51, p<.01$), 자기중심성($r=-.47, p<.05$), 냉담($r=-.42, p<.05$), 비주장성($r=-.38, p<.05$), 과순응성($r=-.42, p<.05$), 과관여와 부적 상관을 보였다($r=-.41, p<.05$). 또한 화용론적 능력 중 관계형성은 또래관계문제 충점($r=-.50, p<.01$), 통제지배($r=-.49, p<.01$), 자기중심성($r=-.41, p<.05$), 냉담($r=-.47, p<.05$), 비주장성($r=-.38, p<.05$), 과순응성과 부적상관이 있었다($r=-.42, p<.05$). 화

용론적 능력 중 맥락사용은 통제지배($r=-.42, p<.05$), 냉담과 부적상관을 보였다($r=-.45, p<.05$). 정상아동의 공감능력충점은 또래관계문제 중에서도 자기중심성($r=-.62, p<.01$), 냉담과 부적상관을 보였다($r=-.77, p<.01$). 즉 정상아동에서 전반적인 공감능력이 낮은 아동은 자기중심적인 양상을 보이며 다른 사람에게 정서적 친밀감을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하였다. 한편 정서적 공감은 또래관계문제 중 비주장성과 부적상관을 보였다, ($r=-.44, p<.05$). 즉, 정서적 공감이 낮은 아동은 더 자신감이 결여되어있고 의사표현을 어려워하였다.

ADHD 아동의 화용론적 결함과 공감능력 중 어떠한 요소가 또래관계문제를 가장 잘 설명하는지 탐색하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표 8에 제시하였다. 이 분석들에서 공차한계 값은 전부 .421 이상으로 .10보다 컸고 VIF는 전부 1.001 이하로 10보다 훨씬 작았으므로 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Durbin-Watson 계수를 산출한 결과 전부 1.314에서 2.511 사이에 있어 잔차와 자기상관의 문제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DHD 아동의 인지적 공감이 통제지배 문제의 13%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F(1,27)=5.18, p<.05$). 또한 화용론적 결함 중 맥락사용이 냉담의 21%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였으며($F(1,27)=8.81, p<$

표 8. ADHD 아동의 또래관계문제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석

| | 변인 | β | t | R^2 | ΔR^2 | ΔF |
|--------|--------|---------|---------|-------|--------------|------------|
| 통제지배 | 인지적 공감 | -.40 | -2.77* | .16 | .13 | 5.18* |
| 냉담 | 맥락사용 | -.49 | -2.96** | .24 | .21 | 8.81** |
| 사회적 억제 | 맥락사용 | -.39 | -2.24* | .15 | .12 | 5.05* |

* $p<.05$, ** $p<.01$

표 9. 정상 아동의 또래관계문제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석

| | 변인 | β | t | R^2 | ΔR^2 | ΔF |
|-----------|---------|---------|----------|-------|--------------|------------|
| 또래관계문제 총점 | 정형화된 언어 | -.51 | -3.01** | .26 | .23 | 9.06** |
| | 통제지배 | -.51 | -3.00** | .26 | .23 | 9.03** |
| 자기중심성 | 정형화된 언어 | -.47 | -2.73* | .23 | .19 | 7.46* |
| | 인지적 공감 | -.45 | -2.97** | .20 | .20 | 8.87** |
| 냉담 | 정서적 공감 | -.61 | -3.86*** | .37 | .34 | 14.95*** |
| | 인지적 공감 | -.48 | -3.78*** | .23 | .22 | 14.30*** |
| 비주장성 | 정서적 공감 | -.44 | -2.46* | .19 | .16 | 6.05* |
| 과순응성 | 관계형성 | -.42 | -2.34* | .18 | .14 | 5.51* |
| 과관여 | 정형화된 언어 | -.41 | -2.25* | .16 | .13 | 5.08* |

* $p < .05$, ** $p < .01$, *** $p < .001$

.01), 사회적 억제의 12%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F(1,27)=5.05, p < .05$). 이 외에 맥락사용을 제외한 화용론적 능력의 하위요인과 정서적 공감은 ADHD 아동의 또래관계문제를 유의하게 설명하지 못하였다.

다음으로, 정상아동의 또래관계문제를 가장 잘 설명하는 변인을 탐색하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표 9에 제시하였다. 정상아동의 또래관계문제를 정형화된 언어가 23%, ($F(1,25)=9.06, p < .01$), 통제지배를 23%, ($F(1,25)=9.03, p < .05$), 과관여를 13% 설명하였다, ($F(1,25)=5.18, p < .05$). 또한, 자기중심적인 또래관계문제를 정형화된 언어가 19%, ($F(1,25)=7.46, p < .05$), 인지적 공감이 20% 추가적으로 설명하였다($F(1,25)=8.87, p < .01$). 정상아동의 화용론적 결합 중에서 관계형성은 과순응성을 14% 설명하였다($F(1,25)=5.51, p < .05$). 정상아동의 냉담을 정서적 공감이 34% 설명하였으며 ($F(1,25)=14.95, p < .001$), 인지적 공감이 냉담을 22% 추가적으로 설명하였다, ($F(1,25)=14.30, p < .001$). 비주장성을 정서적 공

감이 16% 설명하였는데 다른 사람의 느낌을 공감하기 어려워하는 아동은 또래관계에서 자신감이 없고 자신의 욕구나 의사표현을 하는 것을 어려워하였다($F(1,25)=6.05, p < .05$). 이 외에 화용론적 능력 중 부적절한 시작, 결속력, 맥락사용은 정상아동의 또래관계문제를 유의하게 설명하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는 공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는 표 10에 제시하였다. F 검증에서 유의미한 집단 차이를 보이는 또래관계문제에서 화용론과 공감에 해당하는 특정 변인을 공변량으로 설정하여 통제하였을 때에 F 값이 유의미하게 줄어드는지를 살펴보았다. 공변량을 통제 후 F 값이 유의미하지 않은 수준으로 변화했다면, 공변량으로 설정한 변인이 또래관계문제의 집단차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래관계문제 중 통제지배의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하였는데($F(1,54)=6.48, p < .05$), 공변량분석을 통해 맥락사용의 영향력을 통제하였을 때 집단 간 차이가 없어졌다($F(1,53)=1.39, ns$). 맥

표 10. 집단 간 또래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공변량분석

| | 통제 전 | 통제 변인 | 통제 후 |
|--------|----------|---------|----------|
| | F | | F |
| 또래관계문제 | 14.75*** | 맥락사용 | 6.40* |
| | | 공감총점 | 4.35* |
| 통제지배 | 6.48* | 인지적 공감 | 5.35* |
| | | 맥락사용 | 1.39 |
| 자기중심성 | 4.40* | 공감총점 | 2.39 |
| | | 인지적 공감 | 3.36 |
| | | 정서적 공감 | 2.98 |
| | | 화용 총점 | 0.04 |
| | | 맥락사용 | 0.86 |
| | | 공감총점 | 17.19*** |
| 냉담 | 20.36*** | 인지적 공감 | 19.46*** |
| | | 화용 총점 | 2.40 |
| | | 부적절한 시작 | 4.72* |
| 사회적 억제 | 15.07*** | 맥락사용 | 8.55** |
| | | 맥락사용 | 6.38* |
| 비주장성 | 12.94*** | 화용총점 | 1.81 |
| | | 맥락사용 | 5.52* |

* $p < .05$, ** $p < .01$, *** $p < .001$

락사용이 통제지배의 집단 간 차이에 영향을 미쳤다.

자기중심성은 유의미한 집단 간 차이를 보였는데($F(1,53)=4.40, p < .05$), 통제하였을 때 그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게 줄어드는 변인은 공감총점($F(1,53)=2.39, ns.$), 인지적 공감($F(1,53)=3.36, ns.$), 정서적 공감($F(1,53)=2.98, ns.$), 화용총점($F(1,53)=0.04, ns.$), 맥락사용이었다($F(1,53)=0.86, ns.$). 즉 자기중심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공감과 전반적인 화용론적 결함, 맥락

사용이었다.

또한 냉담의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하였는데($F(1,53)=20.36, p < .001$), 통제하였을 때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게 줄어드는 변인은 화용론적 능력 총점이었다($F(1,53)=2.40, ns.$). 즉 화용론적 결함이 냉담의 집단 간 차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비주장성에서 화용론적 능력 총점을 통제하였을 때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하게 줄어들었다($F(1,53)=1.81, ns.$). 즉 화용론적 결함은 비주장성의 집단 차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그 밖에 과순응성, 자기희생, 과관여에서는 통제하였을 때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하게 줄어드는 변인이 없었다.

논 의

본 연구는 초등학교 3-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ADHD 아동과 정상 아동 간 화용론적 결함과 공감능력이 또래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집단차이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또래관계문제와 공감, 화용론적 결함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후 각 집단에서 특정 또래관계문제를 가장 잘 설명하는 변인을 찾고, 또래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공감, 화용론적 결함의 하위요인을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화용론적 결함을 두 집단 간에서 평균치 비교한 결과, ADHD 아동 집단이 정상 아동 집단에 비해 화용론적 결함을 보였으며, 모든 하위요인에서 정상아동에 비해 낮은 점수를 얻었다. 이는 ADHD가 화용론적 결함을 보인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Bishop, 1998; Bishop & Baird, 2001; Geurts & Embrechts, 2008;

Giddan, 1991; Staikova et al., 2013).

둘째, 또래관계문제를 두 집단 간에서 평균치 비교한 결과, ADHD 아동이 정상아동에 비해 또래관계문제를 더 많이 보였으며, 이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바이다(Klimkeit et al., 2006; Uekermann, Kraemer, Abdel-Hamid, Schimmelmann, Hebebrand, Daum & Kis, 2010). 이는 ADHD 아동이 정상아동에 비해 또래관계에서 다양한 주관적 어려움을 겪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공감능력을 두 집단 간 평균치 비교한 결과, ADHD 아동 집단의 공감능력은 정상아동 집단과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ADHD 아동이 공감능력의 손상이 있다고 보았으나, 소수의 연구는 ADHD 아동의 공감능력이 정상아동과 동일한 수준이라고 하여 상충되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공감이 인지적 공감, 정서적 공감 등으로 구성된 다차원적 요소이고(Davis, 1983), 그 범주가 매우 방대하여 연구주제와 측정도구에 따라 서로 다른 공감적 요소를 측정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다른 선행연구에서는 부모나 교사 등 제3자의 평정일 때는 공감의 손상이 보고되었으나 자기보고식 평정에서는 공감능력의 손상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저자는 이를 ADHD 아동의 자기긍정편향으로 인한 것이라 설명하였다(Marton, Wiener, Rogers, Moore, & Tannock, 2009). 본 연구에서도 아동이 자신의 공감능력을 과대평가하여, 실제 아동이 보유한 공감능력정도가 연구에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다음으로, 화용론적 능력과 공감능력 중 또래관계문제와 관련이 있는 변인을 탐색하고자 집단 별로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공변량 분석을 통해 각 집단의 특정 또래

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간접적으로 검증해보았다. 그 결과, 각 집단 내에서 특정 또래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상이하였다. 우선 ADHD 아동은 인지적 공감능력이 부족하면 또래관계에서 통제, 지배하는 문제를 보였으며, 상황에 맞지 않는 의사소통을 보이는 ADHD 아동은 냉담, 사회적 억제와 같은 또래관계문제를 보였다. ADHD 아동은 공감능력과 관련되는 복내측 전전두엽에서 손상을 보인다(Uekermann et al., 2010). 따라서, ADHD 아동이 또래관계에서 친밀한 정서적 표현을 하지 못하고 냉담한 것은 사회적 상황을 전체적으로 조망하지 못하는 인지적 공감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상황적 맥락을 파악하지 못하는 의사소통의 문제도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분산분석 결과, 전반적인 공감, 전반적인 화용론적 결함이 자기중심적이고 냉담한 또래관계문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ADHD 아동이 인지적 공감이 낮고, 대인관계 문제 상황에서 더 자기중심적인 해결전략을 많이 만들었으며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협력하는 전략을 덜 만들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Marton et al., 2009). ADHD 아동은 공감능력이 부족하여 당면한 상황을 파악하고, 다른 사람의 기분을 고려하여 적절한 문제해결방식을 찾는 데 어려움을 보이기 때문에 정상 아동보다 자기중심적 행동을 보일 것이다. 또한 ADHD 아동은 화용론적 결함으로 인해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데 어려움을 보이므로, 상대방이 ADHD 아동의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소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또래관계갈등에 쉽게 노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단계적 회귀분석에서 정상아동 중에

정형화적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 전반적인 또래관계의 문제가 있으며, 다른 사람을 과도하게 통제하고, 자신에게 늘 관심을 가져주기를 원하였다. 이는 유연한 의사소통능력이 부족한 아동이 또래관계에서 어려움을 보인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박진영, 채규만, 2011). 또한, 인지적 공감능력이 부족한 아동은 또래관계에서 자기중심적이고 냉담하였으며, 정서적 공감이 부족한 아동은 냉담하고 자기주장을 하지 못하는 결과를 보였다. 전반적인 공감능력이 친사회적 행동과 관련된다는 선행연구와 유사하게(김혜리 등, 2013; 박성희, 1996; 차화정 등, 2011), 본 연구에서도 공감능력이 부족한 아동이 또래에게 이타적인 도움행동이 적고 자기중심적인 문제를 두드러지게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이상을 통해 본 연구에서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정상집단에서는 인지적, 정서적 공감능력의 부족과 경직된 의사소통능력이 또래관계의 어려움과 관련되었다. 이와 다르게 ADHD 아동의 또래관계문제에는 사회적 조망수용의 어려움과 관련한 인지적 공감의 부족, 사회적 맥락에 맞는 의사소통능력의 제약이 관련되어 보인다. 이러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ADHD 아동은 또래관계에서 친밀한 정서적 표현이나 자기주장을 하지 못하고 위축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변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다보니 자기초점화 되어, 지나치게 친구들을 통제하고 지배하려고 하며, 자기중심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ADHD 아동의 또래관계 적응을 꾀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실시되고 있는 사회성 훈련과 더불어 화용론적 능력, 인지적 공감능력의 증진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적 훈련의 경우에는 각 회기 당 특

정 사회적 기술에 대한 주제가 정해져 있어, 이를 익히고 연습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를 고려해볼 때, ADHD 아동은 사회적 기술을 익히더라도 부주의한 문제로 인해 실제 상황을 전체적으로 조망하지 못하고 부적절한 대응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단지 사회적 기술을 교육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면한 상황에서 사회적 정보를 적절히 탐색하고 처리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함께 사회적 맥락에 적절하게 소통할 수 있는 화용론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특정 사회적 상황에 적절한 언어적 표현과 부적절한 언어적 표현에 대해 훈습하는 것 또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의의는 임상적으로 진단받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라는 점이다. 기존에 수행된 ADHD의 또래관계 및 공감에 대한 연구는 ADHD 증상의 경향성을 보이는 정상아동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온싱글, 김은정, 2003; 이명주, 2006).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지역사회에서의 결과를 임상적으로 진단받은 ADHD 아동에게 교차 타당화 하였다. 또한, ADHD 아동의 화용론적 결함에 대한 국내연구는 매우 소수이며 화용론적 능력의 증진에 따른 효과를 살펴본 질적 연구였으므로, 본 연구는 국내에서는 드물게 ADHD 아동의 전반적인 화용론적 결함을 검증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표본의 크기가 작으며, 초등학교 3-6학년의 특정연령을 대상으로만 얻어진 자료여서 일반화에 한계를 지닌다. 더욱이 ADHD 집단과 정상집단의 짝짓기(matching)가 어려워 발달과정에서 기인하는 차이를 적절히 통제하는 것이 어려웠다. 따라서 추후에

는 대규모 표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정상아동에 비해, ADHD 아동의 변인 간 상관의 유의미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각 변인에 대한 ADHD 아동 집단의 점수가 분산이 좁고 편포되어 있어, 통계검증 상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본 연구는 ADHD의 하위유형과 치료기간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ADHD는 하위유형별로 증상이나 일상생활에서 보이는 양상의 차이가 큰 장애이며 선행연구에서도 ADHD의 부주의 유형은 또래관계문제에서도 사회적 철수, 비주장성과 관련이 있으며, 과잉행동-충동성 유형은 공격성 및 강압적인 모습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 등 또래관계문제의 양상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ADHD의 하위유형 별로 나타나는 변인간의 차이를 밝힐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봉년, 정동선, 황준원, 김재원, 조수철 (2006). 서울시 소아청소년 정신건강문제 역학조사 보고서. 서울: 서울시소아청소년정신건강센터.
- 김영태 (2002). 아동언어장애의 진단 및 치료. 서울: 학지사.
- 김혜리, 정명숙, 손정우, 박민, 엄진섭, 문은옥, 이수미 (2013). 아동의 인지적·정서적 공감 능력과 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6(1), 255-275.
- 박성희 (1996). 공감의 구성요소와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 연구. 교육학연구, 34(5), 143-166.
- 박진영, 채규만. (2011). 집단 따돌림 피해 및 가해 아동의 관련 변인 분석-부모의 양육 행동과 아동의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 능력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0(1), 45-67.
- 서경희 (2010). CCC2 를 이용한 아동 의사소통 능력 발달연구.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25 (단일호), 251-276.
- 서완석, 장혜경, 김진성, 이종범 (2008). 한국형 단축형 부모용 SNAP-IV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신경정신의학, 47(1), 64-72.
- 송영혜, 윤지현, 이승희, 오미경, 김은경, 김향지, 이은진. (2004). 놀이진단 및 평가. 서울: 시그마프레스.
- 양혜영, 김혜리, 김경미, 구재선, 정명숙, 박은혜 (2008). 인지발달: 초등학교의 마음이론과 사회적 능력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1(1), 31-47.
- 온싱글, 김은정 (2003).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 아동의 사회적 이해와 행동.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4), 793-813.
- 이명주 (2006).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의 하위 유형에 따른 남녀 차이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1(4), 459-476.
- 이은주 (2010). 화용언어 평가에 대한 연구동향.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1(4), 93-117.
- 장휘숙 (2001). 사회정서발달: 정신병리를 차단하는 요인으로서의 탄력성.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4(1), 113-127.
- 전영순, 황순택, 이숙희 (2008). 한국 웨슬러 아동 지능검사 단축형의 타당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7(1), 277-290.
- 정혜원, 김종미, 홍상환 (2008). 아동용 교우관계문제검사의 개발과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1(1), 31-47.

- 회지: 학교, 5(1), 1-25.
- 정성철, 홍상환, 김종미. (2011). 아동의 또래지위에 따른 교우관계문제. *초등상담연구*, 10(2), 167-184.
- 차화정, 김혜리, 이수미, 엄진섭, 이승복 (2011). 자기보고형 한국어판 아동용 공감지수 (EQ-C) 척도의 타당화 예비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4(4), 63-81.
- 한국심리학회 심리검사심의위원회 (2011). *최신 심리척도북*. 서울: 학지사.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5*. ManMag
- Bishop, D. V. M. (1998). Development of the Children's Communication Checklist (CCC): A method for assessing qualitative aspects of communicative impairment in children. *Th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and Allied Disciplines*, 39, 879-891.
- Bishop, D. V. M. (2003). *The Children's Communication Checklist*. London: Harcourt Assessment.
- Bishop, D. V. M. & Baird, G. (2001). Parent and teacher report of pragmatic aspects of communication: Use of the Children's Communication Checklist in a clinical setting. *Developmental Medicine & Child Neurology*, 43, 809-818.
- Cardoos, S. L. & Hinshaw, S. P. (2011). Friendship as protection from peer victimization for girls with and without ADHD.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9, 1035-1045.
- Cohen, D. & Strayer, J. (1996). Empathy in conduct-disordered and comparison youth. *Developmental Psychology*, 32, 988-998.
- Clark, T., Feehan, C., Tinline, C., & Vostanis, P. (1999). Autistic symptoms in children with attention 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European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8, 50-55.
- Davis, M. H. (1980).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JSAS Catalog of Selected Documents in Psychology*, 10, 85-103.
- Davis, M. H. (1983). Measur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Evidence for a multidimensional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 113-126.
- Geurts, H. M. & Embrechts, M. (2008). Language profiles in ASD, SLI, and ADHD. *Journal of Autism and Developmental Disorders*, 38, 1931-1943.
- Giddan, J. J. (1991). Communication issues in 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Child Psychiatry and Human Development*, 22, 45-51.
- Gillberg, C. (2007). Non-autism childhood empathy disorders. (Eds.) In T. F. Farrow, & P. W. Woodruff. (Eds.), *Empathy in mental illness* (pp. 111-125).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odges, S. D. & Biswas-Diener, R. (2007). Balancing the empathy expense account: Strategies for regulating empathic response. In T. F. Farrow, & P. W. Woodruff. (Eds.), *Empathy in mental illness* (pp. 389-407).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offman, M. L. (1990). The contribution of empathy to justice and moral reasoning. In Eisenberg, N & Strayer, J.(Eds.), *Empathy and its development*(pp. 47-80). CUP Archive.
- Hoza, B., Mrug, S., Gerdes, A. C., Hinshaw, S.

- P., Bukowski, W. M., Gold, J. A., & Arnold, L. E. (2005). What aspects of peer relationships are impaired in children with attention-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3*, 411-423.
- Klimkeit, E., Graham, C., Lee, P., Morling, M., Russo, D., & Tonge, B. (2006). Children should be seen and heard self-report of feelings and behaviors in primary-school-age children with ADHD. *Journal of Attention Disorders, 10*, 181-191.
- Lee, S. S., Lahey, B. B., Owens, E. B., & Hinshaw, S. P. (2008). Few preschool boys and girls with ADHD are well-adjusted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6*, 373-383.
- Lezak, M. D., Howieson, D. B., Bigler, E. D., & Tranel, D. (2012). *Neuropsychological assessment* (5th, e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Marton, I., Wiener, J., Rogers, M., Moore, C., & Tannock, R. (2009). Empathy and social perspective taking in children with attention-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7*, 107-118.
- Mikami, A. Y. (2010). The importance of friendship for youth with attention-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Clinical Child and Family Psychology Review, 13*, 181-198.
- Mrug, S., Hoza, B., Gerdes, A. C., Hinshaw, S., Arnold, L. E., Hechtman, L., & Pelham, W. E. (2009). Discriminating between children with ADHD and classmates using peer variables. *Journal of Attention Disorders, 12*, 372-380.
- Nijmeijer, J. S., Minderaa, R. B., Buitelaar, J. K., Mulligan, A., Hartman, C. A., & Hoekstra, P. J. (2008). Attention-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and social dysfunctioning. *Clinical Psychology Review, 28*, 692-708.
- Oram, J., Fine, J., Okamoto, C., & Tannock, R. (1999). Assessing the language of children with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merican Journal of Speech - Language Pathology, 8*, 72-80.
- Pelham, Jr, W. E., Fabiano, G. A., & Massetti, G. M. (2005). Evidence-based assessment of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in children and adolescents.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34*, 449-476.
- Staikova, E., Gomes, H., Tartter, V., McCabe, A., & Halperin, J. M. (2013). Pragmatic deficits and social impairment in children with ADHD.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54*, 1275-1283.
- Uekermann, J., Kraemer, M., Abdel-Hamid, M., Schimmelmann, B. G., Hebebrand, J., Daum, I., & Kis, B. (2010). Social cognition in 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Neuroscience & Biobehavioral Reviews, 34*, 734-743.
- Wehmeier, P. M., Schacht, A., & Barkley, R. A. (2010). Social and emotional impairment in children and adolescents with ADHD and the impact on quality of life.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46*, 209-217.

1차원고접수 : 2016. 04. 15.

수정원고접수 : 2016. 05. 24.

최종게재결정 : 2015. 05. 31.

The Relationships between Pragmatic Language Deficits, Low Empathy, and Peer Relation Problems in Children with ADHD

Seon Namgung

Young-Ho Lee

Jeju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relation of pragmatic language deficits and low empathy to peer relation problems in children with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ADHD) by comparing them with the control group. For this purpose, the research and final analysis were performed with 56 children (10-13 years old) and their parents (29 with ADHD, 27 in the normal range of behavior).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ADHD group showed higher pragmatic deficits and higher peer relation problems than the control group. Second, each group presented a distinct pattern of findings on pragmatic deficits and empathy associated with peer relation problems. These findings discussed above suggest that children with ADHD may experience difficulties in peer relationships due to their lacking of abilities to communicate appropriately to insituational contexts and that they may excessively control their friends with a self-centered attitude due to the deficit of their cognitive empathy.

Key words : ADHD, peer relation problem, pragmatic language deficits, empathy